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부부갈등을 매개변인으로*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Parenting Stress in Preshooler's mothers

: Marital Conflict as a Mediating Variable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예 남 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 수 민 하 영***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Doctoral Course: Ye, Nam-Hee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Associate Professor : Min, Ha-Yeo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parenting stress using marital conflict as a mediating variable for mothers of preschoolers. The subjects were 370 mothers who lived with at least one preschooler in Daegu or Gyeongbu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s well as single and multiple regressions that used SPSS Win 15.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dult attachment by mother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arenting stress. The adult attachment level of mothers becomes lower as the perception of parenting stress increases. (2) The adult attachment by mother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rital conflict. That is, the adult attachment level of mothers becomes lower as the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increases. (3)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in parenting stress by mothers was reducing explanation when controlled for the marital conflict. Adult attachment which influenced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as partially mediated by marital conflict.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to reduce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there is a need to improve spousal relationship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more active support to improve conjugal relations for mothers whose adult attachment was not stable.

▲주요어(Key Words) :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성인애착(adult attachment),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 주 저 자 : 예남희 (E-Mail : louis1999@nate.com)
*** 교신저자 : 민하영 (E-Mail : hymin@cu.ac.kr)

Ⅰ. 서론

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일상에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민하영, 김경화, 2005; Crnic, & Acevedo, 1995; Crnic & Booth, 1991)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스트레스가 가족의 죽음이나 이혼과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보다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신체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보다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Beavers,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분명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도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양육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김현미, 도현심, 2004; 이수미, 민하영, 2007; 이주리, 이종인, 2008; 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감소시키는 방안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기질, 어머니의 연령이나 취업유무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남혜순, 2003; 이수미, 민하영, 2007; 안지영, 2001; 조용신, 정영숙, 2000; Abidin, 1990; Crnic & Acevedo, 1995; Crnic & Greenberg, 1990)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자신의 내적 특성 변인이나 가정환경 변인을 규명하거나 또는 어머니의 내적 특성과 가정환경 특성을 함께 규명하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어머니 자신의 내적 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측면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일상의 양육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자녀 측면이 아닌 어머니 측면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인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됨(Lazarus & Folkman, 1984)을 고려할 때, 어머니 자신(내적 특성 변인)이나 어머니 자신을 둘러싼 환경(가정환경 변인)에 대한 이해는 양육으로부터 경험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내적 특성인 성인애착과 가정환경 변인인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양육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경험이라면, 성인애착은 어머니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양육경험, 즉 자신이 받았던 양육의 과거경험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거는 현재를 설명하고 또 현재는 미래의 발달특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과거 양육경험으로부터 형성되어진 성인애착은 개인의 내적 인성 특성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인애착이란 신체적, 심리적 안전과 보호를 위해 주관적인 잠재력을 제공하는 한사람이나 몇몇의 특정 개인과 접촉과 근접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개인의 안정된 경향을 말한다(Berman & Sperling, 1994). 이러한 안정된 경향은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인지적-애정적-동기적 도식인 애착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였다. 생애 초기에 자신을 양육하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아동기, 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ffer & Katherine, 2009). 내적작동모델은 생애 초기에 애착 대상(주 양육자)으로부터의 애착경험과 지식을 내면화하여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형성된 인지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생애 초기 어머니(주 양육자)로부터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경험한 영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게 되고, 둔감하고 무관심한 양육을 경험한 영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일생동안 잘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특성으로 발전(문영경, 민현숙, 2008)하여 성인애착을 통해 성인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인애착은 성인기 대표적 대인관계인 연인관계나 부부관계(김광은, 2005; 이희숙, 박경, 2008; 전효정, 1999; Eiden, Teti, & Corns, 1995; Hazan, & Shaver, 1987)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주요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 간 관계 뿐 아니라 성인과 아동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hn, Cowan, Cowan, & Pearson, 1992). 문영경과 민현숙(2008)은 어머니의 애착이 보다 안정적 성향을 보일 때 양육스트레스가 보다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면서,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성인과 아동 간 관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어머니-자녀 간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으며 어머니-자녀 간 관계를 양육스트레스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문영경, 민현숙, 2008; 유희정, 강연욱, 이훈진, 2004; 정윤주, 2008)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성인애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각되는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어머니-자녀 간 관계를 설명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재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내적 특성인 성인애착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배우자는 자녀양육에 있어 주 양육자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따라서 배우자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활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원체계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완화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경우, 사회적 지지로부터 얻게 되는 자신감과 만족감은 어머니로 하여금 부모역할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끄는 토대가 된다(유우영, 이숙, 1998). 어머니의 양육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이와 같은 긍정적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양육활동을 보다 부담스럽고 어렵고 짜증스럽게 평가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부부 간의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Coleman, 1984)나 부부 간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Strauss, 1979)으로 인해 배우자로부터의 지지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즉 부부갈등 상황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Grych, & Fincham, 1990; Grych, Seid, & Fincham, 1992)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부부갈등과 양육행동 또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부적응에 관한 것(김민정, 도현심, 2001;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1; Davies, & Cummings, 1994)일 뿐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없다. 이에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정내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이 모-자녀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자신의 내적 특성인 성인애착과 배우자와의 관계인 부부갈등에 의해 각각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이 부부갈등의 선행변인으로 역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인애착이나 아동기 양육경험이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광은, 2005; 정미경, 김영희, 2003)는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으로부터 발달한 성인애착이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부부갈등의 선행변인으로 기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Bowlby(1969)의 애착개념에 뿌리를 둔 성인애착의 안정된 성향은 성인기 친밀한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애착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보다 신뢰롭고, 헌신적이며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부부 간 관계에서도 보다 높은 만족도와 낮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Feeney, Noller, Bonnell, & Callan, 1994)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갈등이 어머니 자신의 성인애착 특성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부부갈등과 독립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부부갈등의 선행변인으로 역할하면서 부부갈등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인 간 연결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어머니 자신의 내적 특성 변인인 성인애착과 가정환경 변인인 부부갈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통합적 인과관계 안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이 부부갈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Baron과 Kenny(1986)는 다음 과정이 충족될 때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종속변인(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어머니의 성인애착)은 매개변인(부부갈등)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독립변인(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매개변인(부부갈등)이 종속변인(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동시에 투입됨으로써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효과를 각각 통제했을 때 매개변인(부부갈등)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때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셋째 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각각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련이 나타나는 가운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첫 번째 단계보다 감소했다면, 이러한 경우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단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은 부부갈등에 의해 매개되는가?

[1-1] 어머니의 성인애착(독립)은 양육스트레스(종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어머니의 성인애착(독립)은 부부갈등(매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종속)에 대한 성인애착(독립)의 영향은 부부갈등(매개) 통제 시에도 유의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 4, 5세 유아의 어머니 37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유아기는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면서, 영아기에 강조되었던 신체적 보호 외에 본격적인 사회화 과정이 요구되는 시기로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370명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정보에 기초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307명(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의 연령 역시 30대가 267명(72.2%)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가 148명(40%)으로 남편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149명(40.3%)으로 소득은 250-450만원이 182명(49.2%)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2명이 262명(70.8%)으로 가장 많았으며 228명(61.6%)의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햇수는 10년 미만이 270명(73%)으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안지영(2001)이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문항을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18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2문항을 삭제하여 총 1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방법은 Likert식 4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가능 총점의 범위는 16점에서 6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들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물(과자, 음료 등)을 계속 치워야 한다.', '아이가 나를 귀찮게 하고 칭얼대고 불평한다.', '음식에 대해 까다롭게 굴거나 불평하는 등 식사시간에 어려움이 있다.' 등의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α=.86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성인애착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인애착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를 김은정과 권정혜(1998)가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8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문항 6문항을 삭제하여 총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측정 방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가능 총점의 범위는 12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문항 구성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를 완전히 믿기 어렵다고 생각 한다.' 등의 8개의 부적인 문항과 '나는 누군가가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누군가가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다.' 등의 정적인 문항 4개로 구성되어있다. 부적인 문항 8개는 역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α=.71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370)

변인	구분	명(%)	변인	구분	명(%)
어머니 연령	20대	24(6.5)	남편 연령	20대	4(1.1)
	30대	307(83)		30대	267(72.2)
	40대	39(10.5)		40대	99(26.7)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48(40)	남편 학력	고졸이하	125(33.8)
	전문대졸	117(31.7)		전문대졸	96(25.9)
	대졸이상	105(28.3)		대졸이상	149(40.3)
어머니 취업여부	전업	228(61.6)	가계 소득	250만 미만	118(31.9)
	취업	142(38.4)		250-450만	182(49.2)
				450만 이상	70(18.9)
결혼햇수	10년 미만	270(73)	자녀수	1명	67(18.1)
	10년 이상	100(27)		2명	262(70.8)
				3명 이상	41(11.1)

3) 어머니의 부부갈등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Porter와 O'Leary(1980)의 O'Leary-Porter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은 4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아니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응답 가능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구성은 '돈 문제에 관해 남편과 말다툼을 한다.', '장난감이나 과자, 또는 돈 등 아이가 원하는 요구에 대해 남편이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를 오라고 해서 내가 대신 아이의 요구를 들어준다.'등의 부적인 문항 9개와 '나와 남편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의 정적인 문항 1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α=.7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 경북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 4, 5세 유아의 어머니 37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만 3, 4, 5세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성인애착, 부부갈등을 묻는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의 지도로 연구 목적과 응답 요령이 적힌 안내문을 함께 동봉하여 원아를 통해 각 유아의 어머니에게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2주일 후에 재방문하여 직접 수거하거나 방문 시 수거되지 않은 질문지는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총 500부가 배부되었으나, 이 중 390(7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결측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중 기재 되어있는 질문지 20(4.0%)부를 제외한 총 370(74%)부가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의 단순 및 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애착의 평균(표준편차)은 42.85(5.68)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의 평균(표준편차)은 19.22(4.11),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의 평균(표준편차)은 30.22(6.46)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과정 모델을 기초로 연구문제 1-1, 1-2, 그리고 1-3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1단계(연구문제 1-1)에서는 독립변인(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종속변인(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연구문제 1-2)에서는 독립변인(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매개변인(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연구문제 1-3)에서는 독립변인(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매개변인(부부갈등)을 동시에 투입하여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종속변인(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독립과 매개변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3의 경우 중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인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선성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93, VIF값이 1.0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나타내지 않아 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3>의 1단계에서 나타나듯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β=-.29, p<.01)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성인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즉 안정적으로 잘 형성되었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단계에서도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부부갈등에 부적인 영향(β=-.19, p<.01)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역시 Baron과 Kenny(1986)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성인애착 점수가 낮을수록, 즉 성인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었을수록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나타나듯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은 부부갈등을 통제했을 때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β=-.29-->β=-.19)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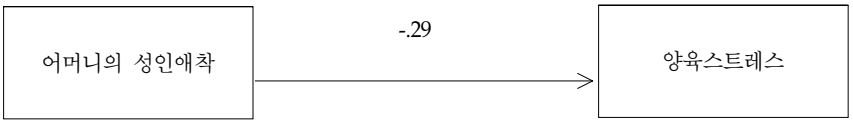
<표 2>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의 기술 통계치

변인(문항수)	최소-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성인애착(12)	26-56	42.85(5.68)
부부갈등(10)	10-33	19.22(4.11)
양육스트레스(16)	16-54	30.25(6.46)

<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에 대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Std. Error	β	F값 (df)	R^2	상수 (Std. Error)
1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어머니의 성인애착 → 양육스트레스	-.33	.06	-.29**	32.93 (1,368)	.08	44.22 (2,456)
2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어머니의 성인애착 → 부부갈등	-.20	.04	-.27**	28.94 (1,368)	.07	27.60 (1,569)
3단계	독립, 매개변인 → 종속변인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22	.06	-.19**	41.47 (2,367)	.18	29.81 (3,145)
			.55	.08	.33**			

주)**p<.01



<그림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

<그림 2> 부부갈등을 매개로 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

<표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과 부부갈등의 경로모형 분할표

구분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어머니의 성인애착→부부갈등	-.27**	-.27**	-
어머니의 성인애착→양육스트레스	-.28**	-.19**	-.09**
어머니의 부부갈등→양육스트레스	.33**	.33**	-

주)**p<.01

애착의 영향이 부부갈등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짐을 나타내며, Baron과 Kenny(1986)의 세 번째 조건 중 부분 매개효과를 만족하는 것이다<그림 2참조>.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표 1>의 1단계 결과를 토대로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으며,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부부갈등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표 3>의 2, 3단계를 토대로 하여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한편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부갈등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간 매개 관계의 경로모형을 분할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만 3, 4, 5세 유아를 양육하는 37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이 부부갈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가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과정 모델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한 연구들(문영경, 민현숙, 2009; 유희정 등, 2004; 정윤주, 2008)을 지지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양육스트레스의 부적 관계는 어머니의 과거 양육경험으로부터 발달한 성인애착이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 즉 현재 양육경험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개인 내적 특성인 성인애착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 및 인식 등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부부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배우자 선택, 결혼만족 간의 관계(김광은, 2005; 이희숙, 박경, 2008; 전효정, 1999)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고한 연구들과 일맥상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은 부부갈등을 통제하였을 경우 설명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이 부부갈등에 의해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이 부부갈등에 의해 부분 매개된다는 사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 생애 초기부터 발달해온 성인애착보다 현재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부갈등이 보다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애착 특성보다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데 있어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매우 안정적 애착표상을 가졌다하더라도 자녀 양육시 배우자와의 갈등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식하는 매개체로 역할하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어머니 자신의 내적인 인성특성인 성인애착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배우자와의 부부갈등과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어머니의 성인애착 개선을 통해 부부갈등이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성인애착 개선 노력은 궁극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부갈등을 약화시킴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성인애착이 낮아, 안정적이지 않은 내적작동모델의 애착표상을 지닌 어머니를 우선 대상으로 성인애착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문제를 어머니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매개 모형을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의 개인 내적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한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에게 보다 더 크다는 점(박성옥, 1997)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이 어머니 자신의 취업 여부에 의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한다. 이러한 시도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광은(2005).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 만족도 및 부부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김민정 ·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김은정 · 권정혜(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3.

김현미 ·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남혜순(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다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아동교육, 12**(2), 121-135.

문영경 · 민현숙(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65-176.

민하영 · 김경화(2005).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27-34.

박성옥(1997).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6**(2), 37-45.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유우영 · 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유희정 · 강연욱 · 이훈진(2004). 아동의 장애유형과 어머니 애착유형이 양육태도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77-89.

이수미 · 민하영(2007).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19-225.

이주리 · 이종인(2008). 어머니의 수용, 거부와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경험. **놀이치료연구, 12**(2), 17-27.

이희숙 · 박경(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 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전효정(1999).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성인기 애착유형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보육연구, 5**, 21-34.

정미경 ·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정윤주(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조용신 · 정영숙(2000).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71-281.

Abidin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eavers, B. R. (1997). The role of emotion in children's selection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daily stresses. *Merrill-Palmer Quarterly, 43*, 129-146.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Attachment in adult*.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 Vol. I.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Cohn, D. A., Cowan, P. A., Cowan, C. P., & Pearson, J. (1992). Mother's and fathers' working models of childhood attachment relationships, parenting styles, and child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417-432.

Coleman, J. C.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The Bobbs Merrill.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Crnic, K. A., & Acevedo, M. (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4*, 277-29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Cummings, E. M., Davies, P. T., & Campbell, S. B. (2001).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Brown University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Letter, 17*(5), 1-4.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Eiden, R. D., Teti, D. M., & Corns, K. M. (1995). Maternal working model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6*, 1504-1518.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 contextual frame 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Hazan, C., & Shaver, P. R. (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oller, P., Feeney, J. A., Bonnell, D., & Callan, V. J. (1994). A longitudinal study of conflict early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2), 233.

Shaffer, D. R., & Katherine, K. (2009). *Developmental Psychology*. Cengage Learning.

Simons, R. L., Beaman, L.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91-106.

Strauss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접 수 일 : 2010년 05월 15일
□ 심 사 일 : 2010년 06월 30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9월 18일